

경영이념 : 환자중심병원 일류수준진료 한마음화합

발행인 : 진수일 | 편집인 : 최 범 | 편집 : 편집위원회 Tel. 02-3430-0414 Fax. 02-558-6797

<http://www.seoulmc.or.kr>

11|12

2006년 제80호

왕진가방



‘마법의 탄환’을 믿지 말고 ‘건강’을 믿으라!
외과 과장 신동규

당신의 미소가 서울의료원의 얼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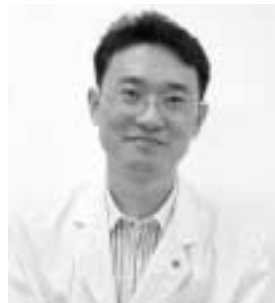


〈제1회 스마일콘테스트〉 ‘건강한 웃음상’ 수상자 내과 전공의 김수현

서울의료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contents

- 4 전문의 칼럼
‘마법의 탄환’을 믿지 말고 ‘건강’을 믿으라! / 외과 과장 신동규
- 6 의학상식
산부인과 진찰실 들여다보기 / 산부인과 과장 최 범
- 9 시와 정경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정희성
- 10 Cyber Hospital / 안과
- 11 해외탐방
또 다른 고향 / 신경과 과장 안진영
- 14 이모저모 / 전공의 체육대회
- 15 청찬 릴레이 편지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아 선생님 / 응급센터 김희정
- 16 우리부서소개
서울의료원 약제팀 / 약제팀 차명진
- 18 호스피스 소망성취 프로그램 후기
천국가는 길 / 호스피스 봉사자 이주희
- 20 특집 - 훈자왕국, 장수의 비결
- 22 함께해요. 서울의료원 -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 24 2006, 한 해를 돌아보며 -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 26 제1회 스마일콘테스트
- 28 이달의 친절스타상은 누구에게?
- 29 2006 친절스타를 소개합니다
- 30 병원소식
- 34 알림방 / 게시판
- 38 편집후기
- 39 진료시간표



표지인물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배우고 익힌 것들을 환자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진실 되고 정직한 마음만이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는 외과 신동규 과장. 사랑을 주는 마음은 햇살이라고 했던가. 따뜻한 햇살을 마음 가득 품은 그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1년에 한번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아직 의료의 손길이 부족한 곳으로 홀연히 진료봉사를 떠난다. 고된 여정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무료함과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봉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목적을 발견한다며 오히려 자신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씩씩하게 웃는 그. 국경 없는 진정한 사랑의 의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신동규 과장의 앞길에 박수를 보낸다.

‘마법의 탄환’을 믿지 말고 ‘건강’을 믿으라!

외과 과장 ● 신동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대 의학의 발달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를 안고 해결해야 할 만성질환과 암성질환과 같은 현대의 가장 일반화된 질환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를 요청받고 있는 실정이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걸쳐 발달한 과학적 사고와 의학의 발달은 많은 병인을 감염성 세균의 발견에서 찾아내었고 이후 페니실린으로 대표되는 항생제의 발견과 발명으로 현대인들마저 감염성 질환이 통제되었던 향수에 여전히 젖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는 ‘마법의 탄환’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감

염성질환의 극복과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수명의 연장은 의료인들에게 새로운 도전들(만연하는 만성 생활습관성 질환과 암성질환)을 만들어 내었지만 이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치료양식은 페니실린과 같은 마법의 탄환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식의 치료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진료에 임한다면 실제 환자는 지속적으로 고통 속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감염성 질환과 달리 만성질환들은 단일 병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개체요인과 사회문화적 병인을 찾을 수 있기에 안타깝게도 이들 대부분은 마법의 탄환과 같은 특정 치료에 의해서 한 번에 완치되지 않는다.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같이 일상생활습관과 관련된 여러 인자들이 많은 주요 만성 질환의 발병을 늦추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 결과 생애의 많은 기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에 의해서 취사선택되는 생활양식의 변화들은 의료인의 과학적 연



구에 뒷받침되고 부합되어 그 효과가 배가되어야 하고 또 한 의학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가 건강과 의료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의학의 역할은 이미 질병이 발생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모습에서 만성 질환 발생을 늦추는 방향으로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을 도우면서 건강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사의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다행히 반갑게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새로 발생하는 암 환자는 12만 여명에 이르고, 국내 전체 암환자는 36만 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중 가장 많은 암이 여전히 위암으로 매년 2만 명 이상이 발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구화된 생활양식으로 대장암과 전립선암의 발병이 최근 10년 동안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 손실만도 2004년 기준으로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의 쿠로키 토시오 박사의 ‘인간은 왜 암에 걸리는 것인가?’ 라는 책에서 암의 원인으로 일반적인 식사가 35%, 흡연 30%, 바이러스 10%, 기타 만성감염과 호르몬, 유전 등의 순위로 꼽고 있다. 또한 암은 3분의 1이 예방가능하고, 3분의 1이 조기 검진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암이 발병하였더라도 의사에게 마법의 탄환 같은 것을 기대하거나 너무 낙심하여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암의 치료는 등산에 비유할 수 있다. 산을 오르

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다. 가파르지 않은 길, 급경사의 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등산하는 사람의 체력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길을 결정한다. 의사와 환자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환자에게 최대한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의학의 발전과 환자의 삶의 질이 함께 유지, 향상 되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을 이곳에 적으면서 다함께 꼭 암기하고 생활로 실천하여 건강할 때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문진과 함께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B형 간염 예방접종 맞기
- 성 매개 감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칙 지키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보건복지부



의

학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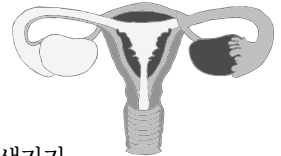
식



어느 젊은 여자 환자가 진찰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종합검진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다.

환자... 저처럼 젊은 여자에게서도 자궁근종이 생기나요? 그럼 앞으로 임신이 힘든 건가요?

의사... 대개는 40-50대에 생기긴 하지만 20대에 생기기도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 데 근종이 있다고 다 불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종의 위치나 크기 증상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선 초음파로 위치를 확인해 보아야겠어요.



산부인과 진찰실 들여다보기

산부인과 과장 ● 최 범

환자가 진찰대위에 올라가서 누웠다.

환자... 아니, 초음파를 질속에 넣는다고요? 아프진 않나요?

의사... 초음파를 복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려면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어야하고 배를 통과해서 자궁을 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질 초음파로 직접 가까이 초음파기기를 갖다대어야합니다. 물론 성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처녀막 파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럴 때는 항문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삽입 시 젤리를 충분히

바르고 보기 때문에 생각처럼 크게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초음파기기에 콘돔처럼 생긴 라텍스를 씌우고선 초음파를 삽입하여 자궁을 관찰하였다.

환자... 생각보다 그리 불편하진 않네요. 그런데 혹이 많이 큰가요? 어떻게 치료하죠?

의사... 다행히 크기가 3cm정도로 큰 편이 아니네요. 보통 8cm이상이면 수술을 한 다고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작은 크기라 하더라도 자궁 내막에 있게 되면 내막을 뚫고 나오면서 출혈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수술은 혹만 도려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선 자궁 전체를 들어내야 하기도 하죠. 개복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합니다. 흔히 레이저수술이라고도 하죠. 실제 레이저는 쓰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자궁근종이라도 크기가 크지 않고 출혈이나 통증 등의 증상이 없다면 지속적인 관찰을 하면서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생리 양을 줄여줄 수 있는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루프 같은 자궁내 장치가 개발이 되어서 이걸 삽입하게 되면 자궁근종으로 인한 증상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효과가 5년 정도 가기 때문에 폐경이 멀지 않으신 분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근종이라 하더라도 폐경이 되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근종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다행히 환자분의 근종은 위치도 자궁의 곁에 달려있는 모양이어서 크게 상관이 없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신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임신하고 나서도 초음파로 위치와 크기를 잘 관찰하면서 임신을 진행시키는데, 대부분 큰 문제없이 자연분만을 합니다. 혹시라도 산도주위를 막게 된다면 자연 분만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더군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 혹이 나팔관을 막고 있다면 불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가 다시 진찰실로 왔다.

의사... 근종의 위치와 크기를 알았고 별 다른 증상이 없으니 6개월 후에 다시 초음파를 보도록 합시다.

환자... 별 달리 주의하거나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의사... 뛰거나 걷기 같은 운동을 많이 해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거나 움직임이 없는 여성에게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골반 쪽으로 혈관이 울혈이 되기 때문에 사무직을 오래한 여성들의 경우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같은 것이 잘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온 몸을 흔들어 주는 뛰기, 줄넘기, 조깅, 수영, 등산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가 종합검진에서 시행했던 자궁경부암 검사지 결과를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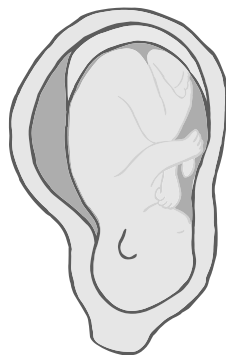
환자는 자궁경부암검사와 인유두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했다.

환자...그럼 자궁경부암 검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무슨 바이러스 검사도 한 것 같은데...

의사...암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인유두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나왔네요.

환자...그 바이러스가 뭔가요? 그게 왜 있다고 나온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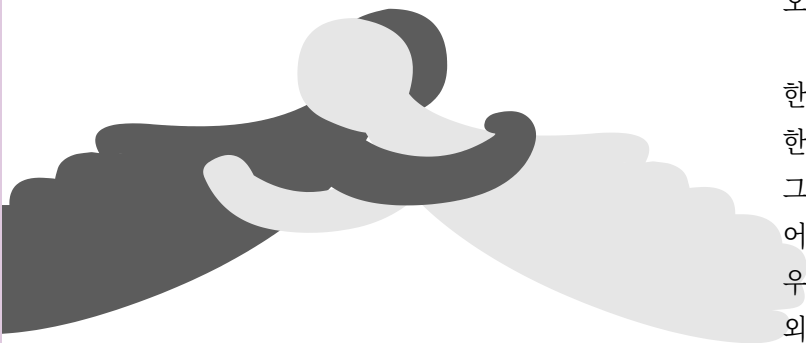
의사...인유두바이러스는 가장 흔한 성병의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성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현재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자에게는 드물게 음경암을 일으킨다고 되어있으나 대부분 별 증상이 없어서 여자에게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물론 약도 없습니다. 면역으로 이겨내는 건데 대부분은 2년 내에 80%이상에서 면역에 의해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하지만 면역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자꾸 바이러스를 옮겨다준다면 이겨내기가 힘들고 결국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거쳐 암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면서 성생활이 상당히 자유로워졌는데 이 바이러스는 콘돔 같은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대부분 그렇지요. 에이즈도 바이러스라서 약도 없고 콘돔으로 완전히 막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콘돔을 씌운 부분 이외에도 분비물과 접촉하기 때문이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느 외국 보고에 의하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한 결과 60%가 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직업여성의 구강내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다고 하니 꼭 성기 접촉을 안했다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자세한건 한국인유두바이러스연구소 인터넷 사이트인 www.hpvkorea.org에 가보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콘돔은 반드시 써야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막을 수 있지요. 환자분은 특히 위험도가 높은 16번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만 나왔으니 6개월 후에 재검을 해야겠어요. 그 동안 질 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치료를 받으셔야합니다.



환자는 산부인과는 미혼이라고 무조건 꺼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의 주의사항과 치료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진찰실을 나왔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정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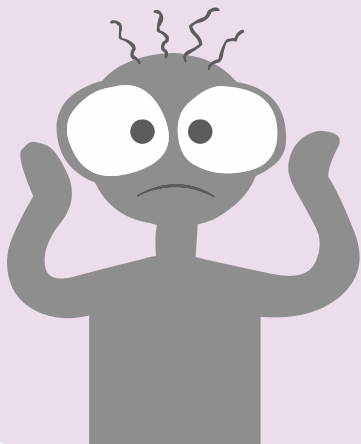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출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시인 정희성(1945 -)은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변신 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정희성 시인은 엄숙한 선비의 목소리와 구체적 현실에 몸담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시인이란 평을 받을 만큼 폭 넓은 시를 쓰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시세계는 첫 시집 <답청(踏靑)>과 대표 시집인 <저문 강에 삼을 씻고>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 그는 시적 자기 인식으로부터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탐구에 이르기까지 70년대 시의 한 경향을 가장 잘 대변해 온 시인 중의 한 사람이며, 그의 이러한 노력은 하나의 문학사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주목되어왔다. 1981년 제1회 김수영문학상과 1997년 시와 시학사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송문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라식수술 후 야맹증이 생겼어요.

질문 박○○ 남, 25세, 181cm

2000년 12월에 라식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 정도 경과 후 시력이 떨어지며 다시 안경을 착용하게 되었는데요. 시력저하와 함께 야간 운전 시 차선이나 버스 번호 등을 보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또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바닥의 울퉁불퉁한 곳이 잘 보이지 않아 발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라식수술 하기 전 시력은 우안 -9디옵터와 좌안 -8디옵터 정도입니다. 제가 20세에 라식을 받아서인지, 라식 전 안경 교정시력은 1.0에서 1.2정도였는데 지금 안경교정은 0.5에서 0.7정도 나옵니다. 지금 저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오주연 안과 과장

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라식 수술 후 근시로의 퇴행현상이 발생하신 것 같고, 그 외에 어두워진 후에 불편해 하시는 것은 눈부심 현상으로 보입니다. 고도근시로 라식 수술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데, 수술 후 다시 근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재수술을 하거나, 콘택트렌즈 또는 안경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야간의 눈부심 현상은 사람의 동공(검은 동자 안의 애기동자)은 어두운 상태에서는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데, 라식 수술 받은 수술부위보다 동공이 더 커지거나 혹은 비슷한 크기로 되면 수술 경계 부위에서 눈부심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많이 심하시면 약물적으로 동공을 축소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과관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정시력이 1.0이상 되지 않는 경우는 안구의 다른 이상이 동반된 경우 일 수 있으므로 안과적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받으신 병원을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상의하십시오.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고향

신경과 과장 ● 안진영

작년 여름 미국에 도착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집으로 들어가던 때를 잊을 수 없다. 마중을 나온 사람의 차를 타고 집으로 꺾어지는 모퉁이 길에 늘어진 나뭇가지위로 걸린 보름달이 어색하기만한 밤이었다. 초등학생인 두 아들과 와이프와 함께 막막한 이역만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솔직히 걱정뿐이었고 그곳에 버려진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그저 오랜 비행에 지쳐 잠 들었고 집에 들어서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다행히 대학교 동기동창이 먼저 이곳으로 연수를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초기 정착과정에 큰 도움을 받았고 별 탈 없이 그 곳 생활에 적응 할 수 있었다.

내가 있던 곳은 버지니아 주립대학으로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설립한 학교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로부터 2시간 거리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인 샬롯츠빌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가 6만 정도 되는 소도시이지만 비교적 잘사는 동네로 깨끗하고 치안상태가 좋아 마음에 들었다. 특히 이 동네는 산맥의 가장자리에 있어 길도 구불구불하고 산도 많아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 기후마저 비슷하였다. 미국의 다른 곳을 많이 여행 다니지는 못해서 미국에 대해 구석구석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미국이란 나라를 경험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주변에 나와 같이 한국에서 나온 가정이 꽤나 있어 많이 외롭지 않았고 가족들도 적응하는데 큰 어

려움이 없었다. 특히 한국에서처럼 놀거리가 많지 않고 밤 문화가 거의 없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간들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좀 더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신경과 환자를 진료하다보니 최근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차 노령인구가 늘어가면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뇌혈관 질환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의외로 국내에는 제대로 전문 관리를 해주는 곳이 드물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년 전부터 이것과 관련되어있는 미국의 대학병원들을 수소문하였다. 국내에도 아직은 블루오션이라 생각되는 파킨슨병 전문센터를

우리병원에서 운영한다면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어 무척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메일을 보내고 수 십 번의 전화통화를 한 끝에 결국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 나를 초빙하여준 교수는 마음씨 좋게 보이는 전형적인 백인으로 나이가 환갑을 넘긴 할아버지 교수 닥터 터틀이었다. 평소에 실험이라고는 학생일 때 조금 해본 것이 전부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연수를 기회로 실험을 하고자 선택한 곳이 바로 닥터 터틀의 실험실이었다. 내가 근무한 실험실에 처음으로 출근하던 날 얼떨떨한 나를 환대해준 실험실 수석기사 팸, 케냐에서 와서 조교수를 하고 있는 아이작, 네팔에서 온 연구원 시마가 지금 생각해도 새삼 고맙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실험의 기초부터 고급기술까지 아낌없이 전수해준 아이작은 아직도 형제처럼 연락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 원래 미국인인 닥터 터틀과 수석기사 팸을 빼면 나머

지는 모두 외국인으로 우리는 가끔씩 모여 미국의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미국의 혜택을 받는 우리는 누구 하나 현재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네팔에서 온 시마는 부부가 함께 왔는데 부부는 다시 네팔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만 아이들 때문



에 망설이는 눈치였다. 케냐에서 온 아이작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비슷해서 어찌어찌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문화가 사뭇 다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느끼지 못 했던 것을 느낄 때는 문화적인 차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적도 있었고, 때로는 그들에 방식에 익숙해져 되려 편하게 느껴진 점도 많았다. 특히 아이들은 처음에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다가 언어도 익숙해지고 친구도 생기니 미국의 생활이 더욱 편해진 듯 보였다.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하였는데 육체적 체벌과 강한 훈육보다는 아이들의 말을 성의 있게 들어주는 선생님들의 태도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단순비교는 무리이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아이들을 대우하는 것만큼은 본받을만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수업을 참관할 경우에는 꼭 가서 보았다. 대체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부모가 모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오시곤 했다. 부모가 그런 날 가지 않으면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혼한 부모라도 학교에서 있는 발표회, 참관수업 그리고 선생님 면담은 꼭 같이 가는 것이 관례 같았다. 나또한 면담에 가보면 아이들을 파악해서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과 무엇이 좋은 점이고 무엇이 부족한 점인지를 진심으

로 상담해 주는 선생님이 정말 고마웠다. 때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받을 때도 꼭 그 자리에서 풀어보고 좀 과장스러운 정도로 고마움과 기쁨을 나타내는 모습이 우리에게만 낯설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주는 사람이 고마울 정도였다. 이렇게 이곳의 문화는 내게 많은 시행착오도 남겼지만,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처음에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그저 속으로는 빨리 시간이 흘러 집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겨울에는 그토록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유 있고 느긋하게 돌아가는 미국이 점차 몸에 익숙해져 나중에는 다시 귀국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가 되었다. 일 년 남짓 나름대로 정들은 이 조그만 소도시를 떠나기 전날, 요란하게 환송해 주는 이웃 한국인들과의 저녁에도 어쩐지 즐겁지 않고 마음이 허전한 것이 꼭 고향을 떠나는 마음이 들었다. 마음에 정을 붙이면 어느 곳이든 고향이라 했던가? 내 인생의 1년간을 차지한 이곳이 나에게도 또 다른 고향으로 기억되고 추억으로 남아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 체육대회

상금 홍보실 통해 다사랑회 전달

● 지난 9월 30일 서울의료원 전공의 협의회 주최로 병원 별관 주차장에서 제1회 농구대회가 열렸다. 전형적인 가을날에 다 같이 모여 점심식사를 하며 오후 1시경 농구 대회가 시작되었다. 내과 2팀, 외과 1팀, 정형외과와 신경과 연합팀 1팀, 인턴선생님 2팀으로 총 6팀이 참가하였다. 우승 후보로는 내과 A팀, 정형외과와 신경과 연합팀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인턴 선생님 2팀과 내과 B팀은 예선 탈락하고 내과 A팀과 정형외과, 신경과 연합팀의 준결승이 벌어졌다. 15대 14로 정형외과, 신경과 연합팀이 역전승을 이끌어 냈고 대망의 결승전은 외과 팀과 벌어지게 되었다. 전반전은 부전승으로 한경기를 쉰 외과팀의 일방적인 공세로 7대 1로 외과팀이 리드하면서 마쳤다. 이후 시작된 후반전에서 정형외과, 신경과 팀은 주전 선수를 총동원 시켜 분발하였으나 15대 13으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외과팀이 최종 우승하였다. 외과팀은 우승 상금 15만원 전액을 홍보실을 통해 다사랑회에 전달 전공의 협의회 이름으로 좋은 일에 쓰이도록 기부하였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일상에 쫓겨 잘 모이지 못했던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다함께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미로 남을 것 같다. 앞으로도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전공의 협의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이번 행사를 끝마쳤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먼저 지난 번 미흡한 저를 칭찬해 주신 원무과 이창호 선생님과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성의와 배려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조금 더 즐겁게 일하자는 마음으로 힘차게 근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왕진가방을 읽으면서도 칭찬릴레이에 제가 주인공이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기도 하면서 민망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전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 기쁨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진단검사의학과 채혈실에서 근무하시는 이경아 선생님입니다.

이경아 선생님은 항상 친절하고 밝은 얼굴을 하고 계셔서 선생님을 볼 때 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늘 웃을 수 있는 지 때로는 존경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짜증을 내고 시비를 걸어도 나 같으면 큰 소리를 버럭 질렀을 법한 일인데도 환한 미소를 띠며 “맘 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다시 처리해 드릴게요.” 하며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하고 뒷사람에게는 미리 숙여 양해를 구하니 오히려 짜증을 냈던 환자분이 민망해 하실 정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소개 했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이 채혈을 해주시던 분이 너무 친절하고 상냥해서 어떻게 채혈이 됐는지도 몰랐으며, 너무 예뻐 보여 이름표를 유심히 보고 왔노라고 하시더군요. 역시나 바로 이경아 선생님이었고, 누구한테나 친절하신가 보다 생각하며 소개한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사실 그 환자분은 만성 질병으로 잦은 채혈 검사를 해서 제가 봐도 정말 혈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는데 거의 경지에 오른 수준으로 단 번에 전혀 고통도 못 느낄 정도로 채혈을 하시고 손수 알콜솜을 지그시 대고 눌러 주면서 “이렇게 오 분 정도 눌러 주세요. 문지르면 오히려 멍이 들거든요.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하며 미소를 짓고선 살짝 머리를 굽혀 같이 온 보호자에게도 인사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칫 하루에도 수백 명씩 많은 환자 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하고 지쳐서 말도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병원 복도나 로비에서 만나도 밝게 먼저 인사하고,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도 친절함 이경아 선생님을 적극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경아 선생님을 접해보신 다른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친절하고 예쁘기까지 한 이경아 선생님이 아직 결혼을 안했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는데, 용기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제가 기꺼이 중매쟁이 해드릴게요. ^^

이경아 선생님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센터 ● 김희정



서울의료원 약제팀

약제팀 ● 차명진



병원 현관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약제팀이 바로 보이지만, 그 속의 팀원들은 지금까지 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는 끈끈한 팀워크를 중시하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치열한 논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일단 결정된 사안은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또한 단순히 급여를 받기 위해 다니는 직장의 동료가 아닌 서로를 한 식구로서 아끼고 사랑하며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아하고 여유 있어 보일수도 있지만,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마음과 몸은 늘 종종걸음이고 또한 용납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려졌던 베일을 벗겨내고자 약제팀 식구들 및 업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모는 순둥이, 하지만 말과 행동은 한 카리스

마 하는 박송희 팀장, 일등 만며느리감인 푸근한 이채영 과장이 선장과 일함사입니다. 그리고 업무는 칼이지만 싹싹한 김영미약사가 병동책임을 맡고 있고, 차가운 외모와는 달리 마음여린 차명진약사가 약품정보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짧은 기간 동안 다사다난한 일을 겪은 황수원 약사는 ‘작은 고추가 맵다’의 산 증인이고, 권유진 약사는 정규약사 중에 유일한 Miss로써 신세대 그녀입니다. 작년 2월에 입사한 정지현 약사는 핸디캡을 극복하는 진정한 노력파이고, 올 6월에 입사한 이경하 약사는 가장 최근의 new face로 소녀처럼 풋풋합니다. 산후휴가에 들어갔던 약사들을 대신해 무지 고생한 이소영 약사는 10월 28일에 드디어 화촉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출근해 익일 아침 8시반 까지(총 15시간) 근무하는 밤지기 일꾼인 조미숙 약사는 너무 여성스럽고 참하

며, 민경일 약사는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고 여자보다 깔끔하십니다. 이 두 분은 홀로 야간약국의 등불을 밝히며 하루 400건 이상의 병동약과 응급실 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힘든 업무여건으로 인해 야간 약사 공석이 빈번하여 간호팀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간호팀 내부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간호팀과 의사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품공급과 여러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지하 약제팀원으로 이기원 과장님과 권오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기원 과장님은 그 외모가 출중하여 우리병원 표지모델(환자역할 ^^*)도 하셨고, 권오찬 선생님은 항상 자상하고 부드러운 미소의 소유자로 여자 약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병원 안에도 약국이 있나요?”라고 반문을 술하게 들었지만 병원약사의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내 처방되는 모든 의약품(주사제, 마약류 포함)의 수급 및 재고 관리를 기본으로 입원 환자·원내 조제 사유(응급실 포함)환자·복지시설(중계 노인복지회관, 각종 부녀보호소, 은평마을 등)의 처방약을 조제하고, 잦은 키오스크에러로 곤란을 겪는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다시 출력해주고, 원외처방전을 다시 출력해주고, 원외처방전 대체조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 정보실에서는 신약 심의, 약품 선정 등의 약사관리위원회

자료를 준비하고,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지침서가 되는 의약품집 발간 및 의약품 정보 제공, 약품 식별 업무,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복약지도 업무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현 실정에서 작년 초부터 퇴원환자 복약지도(의뢰환자)를 실시하다가 약제팀 인력여건과 타부서의 요구에 의해 퇴원환자 복약지도는 일단 유보하고, 작년 8월부터 항암제 조제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시행을 위해 타 병원에 항암제 교육차 약사파견, 특수조제실 마련 등 혼선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항암제 조제 업무가 안전하고 질적으로 개선되어 정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약사가 순환제로 1500여건을 조제했으며, 고가인 항암제의 조제수익도 상당히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고생한 고인이 되신 오윤정 약사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복약지도 업무도 조금씩 실시하여 현재 신장내과 의뢰환자 경우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최고 병원』이라는 큰 비전을 안고 2004년 11월 ‘서울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병원에서 저희 약제팀 또한 수련 병원에 걸맞는 자질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 개개인의 맞춤 약료서비스 제공, 다른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등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천 국 가 는 길

한요셉씨 (男) 53세. 그와는 3년 전쯤 이곳 병원에서 환자보호자로 처음 만나 인연을 쌓게 되었다. 당시 암으로 투병중인 부인을 곁에서 극진히 보살피는 남편으로서 그 정성과 사랑이 우리를 감동 시켰었는데... 지난 해 아내를 하늘로 떠나보낸 후 그 슬픔이 마르기도 전에, 지금은 자신이 위암으로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아가며 힘겨운 병마와 씨름을 하고 있다.

비록 육신은 암으로 인해 병약하고 쇠잔하나, 그의 영혼만큼은 도리어 맑고 강함을 본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신앙의 힘으로 굳건히 버티는 그의 모습이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내가 그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 셈이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얼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꼭 한 번 바다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바닷가에서 싱싱한 회를 먹어보고 싶은데요.” 하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의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고 다짐을 한 후 함께 봉사하는 친구와 협의하여 일을 추진하였다.

이 소식을 429호에 입원해 있는 그에게 전했을 때 그는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기쁨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그는 꿈이 깨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협상(?)을 제안했다. 자신은 동해안의 속초, 고성 바다를 보

고 싶지만 여건이 힘들다면, 가까운 인천 앞바다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라며 어린애마냥 좋아했다.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하면 움직이기 힘들어지므로 빠른 시일에 날짜를 잡아 일시 퇴원해서 그 길로 바로 바다로 출발하기로 계획하였다.

말기 암 환자의 소원성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몇 년 전부터 우리끼리 조용히 해오던 작업이었지만 이번에는 1박2일 이벤트인지라 경비가 부족했기에 잠시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주변에 가까운 봉사자에게 계획을 발설(?)하게 되니, 세 명의 천사가 경비를 충당해 주었다.

공교롭게도 출발 당일 낮 갑작스레 인천에서 장례식에 참여하여 일을 봐주고 오느라 저녁 무렵에야 마천동 그의 집 부근에 도착했다. 나는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내일 아침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을 감추고 그에게 물었다“ 오늘 너무 늦었는데 갈 수 있겠어요?” 그의 대답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떠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대답에서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학수고대 하였는가가 느껴져 속내를 감춘 내 물음에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저녁 6시 반경 마천동에서 출발하여 영동고속도로를 달려 밤 10시경 속초 시내에 도착. 바닷가 횃집을 찾아 대포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심상한 횃감으로 잔칫상을 벌였다. 주인아주머니도 우리의 계획을 전해 들으시고 환자를 위해 전복죽을 미음처럼 부드럽게 썰어주셨고, 다음날 아침에 환자에게 줄 수 있도록 비닐 팩에 두 봉지 나누어 담아주시며 꼭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주라고 주의사항도 잊지 않으셨다.

횃집을 나와 고성 쪽으로 밤바다 길을 달려서 바다 전경이 좋은 하일라비치에 숙소를 잡고 천국에서의 첫 밤을 보내게 되었다. 해 뜨기 전 일어나 바다를 향해 앉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출을 기다리던 그를 보며, 내 가슴에 눈물이 고임을 느꼈다.“ 오늘이 있도록 배려해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바칩니다.” 서울 오는 길은 그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 코스를 바꿔 설악산 미시령고개를 넘어 왔다.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맛 볼 수 있도록...

한요셉씨와 함께한 여행은 우리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올 여름 피서도 못하고 병원에서 봉사했던 우리에게 그가 마련해 준 사랑의 선물이었다.





훈 자 왕 국, 장수의 비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예로부터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 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아직껏 그 해답이 신통치가 않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현실을 벗어난 어떤 이상 세계를 동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이상(理想)의 세계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저 멀리 파키스탄 북쪽 깊숙한 산 속에 장수마을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니 그 이름 ‘훈자왕국’이다.

‘아가씨의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살구꽃이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장수촌 마을 훈자(Hunza). 구절양장의 험난한 카라코람 산맥을 머리에 이고, 힌두쿠시, 히말라야 등 지리시간에 들었을 법 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세 개의 산맥 언저리에 조용히 파리를 튼 작은 왕국이다.

훈자 왕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장수’라는 단어이다. 훈자 왕국은 미국의 유기농 식단 주창자인 제롬 어빙 로데일(Jerome Irivng Rodale)의 연구를 통해 훈자족의 장수비결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바깥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은 왕국 훈자는 1891년 영국의 침략으로 인해 비로소 세계사에 등장하였다.

진흙과 돌을 버무려 지은 집들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것들이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누추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장수마을로 명성을 떨쳐 왔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 곳 훈자에서는 7~80세 노인들이 청년 취급을 받고 100세 넘는 노인들도 흔히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이 장수의 고장이라고 소문이 나자 각처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어 그 장수의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많은 전문의들이 이들의 식생활이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다. 훈자인들은 주식으로 하루 두 끼 우유, 치즈, 차파티(밀가루 빵) 안에 통밀을 넣은 것을 먹고, 아침과 저녁 사이에 간식으로 감자와 과일, 특히 사과와 일 년 내내 말린 살구를 먹는다. 사과와 살구는 항암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요즈음은 여기에 하나 덧붙여 훈자워터 라는 이들의 식수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높고 거대한 산맥에 쌓인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들이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식수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흙탕물처럼 보이는 이 물에는 천연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다고 하여 장수의 비결로 꼽히면서 ‘훈자워터 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물론 앞에 나열된 조건들도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겠지만 그들의 식생활과 훈자워터만으로 장수의 비결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야채와 과일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빙하 녹은 물도 석회질이 포함되어 식수로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훈자인들이 장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몇 해 전 어느 인터뷰에서 최고령 노인은 자신의 건강비결은 “하늘의 뜻에 따르며, 식사는 감자나 시금치 등 땅에서 나는 거친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노인의 말처럼 그들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맑은 공기와 스트레스 없는 삶, 저지방 음식과 소식하는 습관 때문일 것이라.

훈자에서는 최고령이라는 나이보다 이들 노인이 건강하다는 점이 더 인상적인데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공해 없는 곡식을 먹으며 대 자연 속에서 사는 훈자인들이 장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비록 문명의 혜택 없이 살고는 있지만 자연의 넉넉한 품에서 순종하며 사는 훈자인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도시인들보다 더 행복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영상의학과 판독실
생들.. 그동안 정말
고마워요. 모두 건강
하시고 행복 ~ 가족
하세용 ~ ~

서울의료원
직인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원장 권수원

늘 사랑의 손길로 환우들
의 벗이 되어주시는
'호피스 병동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 ♥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호신 선생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하이팅 ~ ♥
사랑해요

기원실 선생님들 ~ ~
평가 도와주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
~ 사랑 해요 ~
😊

누가동
민생 병은 권수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힘 내세요 ~ ♥

왕강병원직원님들
항해동안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 (K)

병원 생활 3개월이
넘은 날씨가 참나
가게 지친치로 듣기 힘들어
백재영 선생님 환자
를 위해 밤늦게까지
리해주시는 모습에 아들
참습니다. 2016. 10. 4

평가 받으셨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마음속으로 담고 있어도 표현하기 힘든
말들이 있다. 때로는 쑥스러움에 때로는
마주치기도 힘들기에 바쁜 일상 속에
묻혀 전하지 못한 말들을 지면에
담아보았다.

날아라 표범
천사형
하이팅!!
3등이쁘니최고!!

성호실 오빠들
님 이 빠
아잉 좋아

식당여사님
마음은 다사!
감사합니다

♥♥♥ 홍보실에서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물 주제로 그동안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한 줄로 적어 메모지를 붙이
는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임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06,

한 해를 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

올 해 나에게 승진이 라는 단어가 찾아왔다. 51병동과 52병동이 라는 무거운 짐 보따리를 가방 안에 넣고 즐거움 뒤에는 묵직함이 앞선다. 한순간의 연출자가 아닌 진실한 마음과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병동식구들을 보듬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첫 직장의 설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으려고 한다. 여러모로 돌봐주신 사랑하는 간호부 식구들. 그리고 주말부부 하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남편과 아들에게 지면으로 깊은 감사드린다. ●●● 김미혜 51,52 병동 수간호사



+

신록이 제 빛을 마음껏 자랑하던 지난 해 5월 부설연구소에 창립 구성원으로 입사 후 하나하나 연구소가 제 틀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진흙 반죽이 물레위에서 점점 제 모습을 찾는 것을 보는 기쁨을 느꼈다. 유수의 다른 연구소를 능가하는 그 날, 그리고 병원 발전과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큰 이바지하는 그 날을 그려 본다. 올 한 해는 개인적인 기쁨보다도 우리 연구소로 인한 뿌듯함이 훨씬 더 큰 듯하다. ●●● 이용직 부설연구소 연구원



+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 과거사에 얽힌 고민과 하루하루가 바빠 시간에 쫓겨 웃음과 건강을 잊어버리고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좋게 보는 것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인 사고로 좋게 보고 웃으며,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두 가지만은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실천하겠다. ●●● 조규성 총무팀장



+

너무 많은 일들이 뇌리를 스치지만 봄바람도 차가운 3월에 간호관리학 강의를 하기 위해 서울여자 간호대학을 갔었고 4개월 동안 삼성동-홍제동을 오가며 빠듯한 시간에 강의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후배들을 만나 임상경험 이야기를 들려 줄 때면 반짝이던 눈빛들을 잊을 수 없었던 즐겁기도 한 시간 이었다. 병원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개인의 성숙을 꾀할 수 있었고 병원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하혜정 학과장님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왕미숙 응급센터 수간호사



+

‘기억에 남는 일?’이라... 지금 전 산부인과 의국장입니다. 의국원 2명중에 말이죠. 1년차의 부재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으나 내년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기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놀아줘!” 전 대답합니다. “나 당직이야!” 내일이면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콜 한통 없었던 내공 좋은 어제였다고 ^^ - 2006년 시월 비 내리는 가을밤에 ●●● 김홍섭 산부인과 전공의

제1회 스마일콘테스트



건강한 웃음을 전해 드리는 병원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지난 9월 한 달간 홍보실에서 마련한 <제1회 스마일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 친구, 환우와 함께했던 소중한고도 예쁜 사진들을 너무나 많이 보내주셔서 시상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면으로나마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의료원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쁜 미소들을 만나보시죠.



건강한 웃음상 (1명)

● 내과 전공의 김수현

아름다운 웃음상 (1명)

● 원무팀 사회복지사 김희정



예쁜 웃음상 (5명)



● 진단검사의학과 이인옥



● 심사과 이용순



● 인턴 황선례



● 호스피스 봉사자
김경순



● 소아과 최혜원 어린이 - 김희영(모)

친절스타

톡톡!!
Talk Talk



혈액종양
내과과장
윤성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후 12년 동안 병원에서 주시는 상으로 처음이라서 무척 기쁩니다. 더욱더 병원을 사랑하며 의사로서의 직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을 받는 것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지요? ㅋㅋㅋ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어떠세요?”라는 인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쁜 모습은 아니더라도 항상 편안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다짐하지만, 뜻하지 않은 응급상황으로 경황이 없어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했던 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환자분의 보호자께서 당신도 지치고 힘들 텐데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간호사님만 보면 즐거워요’라며 격려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역센 경상도 사투리도 예쁘게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에게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며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병동 간호사

김차남

2006★

친절스타 모음



우리는 최근 들어 “어~어? 이 병원 참 많이 달라졌네!” 하는 소리를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모시려고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환자분들도 눈치 채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친절한 병원, 아프면 얼른 생각나는 편안한 병원을 만들어 드리려고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장서 친절서비스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영광의 얼굴, 2006년 서울의료원 친절스타입니다.



김순형 42병동 간호사

1위



임지환 내과 전공의

2위



정미혜 45병동 간호사

2위



신동규 외과 과장

3위



박미미 41병동 간호사

3위



변정현 산부인과 전공의

4위



이수환 재활의학센터 물리치료사

4위



윤성민 혈액종양내과 과장

5위



김차남 42병동 간호사

5위

제1회 위암환자의 날



서울의료원 암센터(센터장 김일명)에서는 9월 22일(금) 4층 대강당에서 위암환자와 보호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 1회 ‘ 위암 환자의 날 ’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위암의 진단, 치료, 영양요법에 이르기까지 위암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로 △위암의 원인과 증상, 내시경적 진단(소화기내과장 장유현) △영상의학과적 진단(영상의학과장 이현) △수술적치료(외과과장 신동규) △항암요법 및 면역요법(혈액종양내과장 윤성민) △위암 수술 후 식사 관리를 어떻게 할까(송도병원 영양과장 김평자) 등의 강의가 마련되는 한편 위암에 도움이 되는 10대 밥상 및 유익한 식품들을 마련하여 환

자들과 직접 함께 시식하는 시간도 가져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고된 투병생활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위암 환자 뿐 아니라 위암이 의심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위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함께하는 희망세상’ - 다사랑회



바자회 서울의료원 후원회인 ‘다사랑회’에서 9월 26일(화)~27일(수) 이틀간 생계가 어려운 환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 함께하는 희망세상 ’이라는 주제 하에 본원 중앙 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 이번행사에는 9월 한 달

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증 받은 물건 판매와 먹거리 장터로 구성된 ‘happy Market’을 열었고, ‘건강하게 고향가는 길’이라는 주제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 동부·북부지사와 제약회사의 후원으로 시민 건강진단 및 상담도 이루어져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행사 기간 동안 세종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정오의 희망콘서트’를 진행하여 현대무용단의 공연과 추억의 7080 음악을 연주하는 등 열정의 무대를 펼쳤으며, 본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용성리 마을의 직판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햅쌀, 고추, 햇과일, 참기름 등 신선한 농산물이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사랑과 행복을 나눠주신 여러분들과 많은 단체 후원자와 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행사수익기금은 ‘다사랑회’ 이름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병원비 및 물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심혈관센터 2000례 기념 심포지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장, 혈관계 질환자들을 위해 서민들에게도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2년 야심차게 문을 연 서울의료원 심혈관센터(센터장 김석연)가 이번에 2000례를 돌파했다. 지난 2005년에는 연700건의 심혈관조영술과 150건의 심혈관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번 2006년 10월에 2000례라는 과업을 달성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18일(수)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혈관 검사(센터장 김석연) △심혈관 시술(순환기내과장 원경현) △관상동맥 우회로술(흉부외과장 성상현)에 대한 강의와 함께 기념다과회를 가지는 등 원내 임직원들과 축하인사를 나누는 한편 심혈관센터 개장이후 2000번째 방문자인 성남의 안판근(52세)씨에게는 심장검사실 무료 혜택의 행운이 주어졌다.

2006 유방암 대국민 건강강좌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암센터에서는 제1회 위암환자의 날에 이

어 10월 19일(목) ‘2006 유방암 대국민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는 △유방암의 발견과 예방(동부시립병원장 유병욱) △유방암 진단을 위한 선별유방 촬영술의 유용성(영상의학과장 이시경) △유방암의 진료 권고안(외과과장 강성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여성의 건강한 가슴을 의미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유방암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본원에서도 이번 강좌를 통하여 한 축을 담당하게 되어 많은 여성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전했다.

송파구 풍납1동 자매결연



10월 24일(화) 본원과 송파구 풍납1동(동장 채관석)이 의료서비스 자매결연을 맺었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과 병원간의 첫 자매결연 사례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31세대 5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어르신 검진 우선 예약 서비스 △가정간호 지원 △진료봉

사단 편성 운영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자매결연식과 함께 경로잔치를 찾아온 풍납동 어르신들에게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약제팀, 간호부 등이 무료진료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KOUS 가을로 음악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의집(KOUS)과 서울의료원이 함께하는 ‘가을路 음악회’가 10월 20일(금) 본원 중앙공원에 마련되었다. 푸르른 가을하늘아래 펼쳐졌던 이번 공연은 환자와 보호자 및 임직원들 뿐 아니라 점심시간을 맞아 인근 주변 회사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시간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감미로운 해금 2중주 등의 퓨전 국악을 선보여 색다른 재미를 선사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의료원 개원 29주년

1977년 개원한 본원이 9월 30일자로 개원 29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



하기 위하여 9월 29일(금) 4층 대강당에서는 진수일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그간 병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위해 10년 근속자들과 병원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에 대한 서울시장 및 병원장 표창과 기념품이 수여되었으며 제1회 스마일 컨테스트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기념행사를 마치고 직원식당에서는 준비된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개원의 날 기쁨을 함께 하였다.

감사원 감사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후관 1층 회의실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들이 모두 감사대상이었으며 경영 및 환자 진료 업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와 더불어 지방의료원 운영 실태 및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그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보호자 없는 병원! 불가능한가?

지난 10월 16일 간호부에서는 내년

부터 시범으로 운영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콜로키움 이 열렸으며 본원의 보호자 없는 병동운영에 대해서 임호순 간호부장의 사례 발표이후 운영에 대한 질의 및 토의가 활발하게 있었다.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실현

간호부에서는 가정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10월 13일 명화사회복지관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강의와 함께 실제 시범이 있었다.

독거노인과 함께 연말을

간호부에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각 병동에서 돌보아드리는 독거노인분들을 병원으로 초대하여 병동식구들과 같이 식사와 함께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12월말에 가질 예정이다.

2010년 신축병원 조감도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66-1번지

일대 신내 2택지 개발지구 내에 지하 3층, 지상13층의 규모로 일반병상 450, 재활병상 150의 총 600병상을 갖춘 서울의료원 신축병원이 설계경기 공모를 통하여 지난 9월 14일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3차 금연교실

서울의료원 금연교실에서 제3차 수강생을 모집한다. 1, 2차의 성공적인 사례들로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금연교실이 직원 및 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일시 및 장소 11월 23일~12월 21일
(매주 목요일 430~530,
3층 회의실)

문의 3430-0542

2006 QI 경진대회



지난 11월 9일(목) 4층 대강당에서 2006년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진료과정과 환경 개선 △업무효율화와 비용절감 △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모두 13개 팀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펼친 가운데 ‘수술 전 정보제공을 통한 환자 만족도 향상’에 대해 발표한 31병동 팀이 최우수상을 ‘외래 환자 부도율 조사를 통한 고객 관리’를 주제로

로 외래1팀과 ‘진료비 관리 개선을 위한 QI활동과 항생제 처방 및 삭감 줄이기’를 주제로 심사1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진수일 원장은 “의료, 간호, 보건,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료의 수준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프로세스 개선에 이르는 풍성한 맘의 결정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어 기쁘다”는 인사말과 함께 이번 행사를 통해 발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도 연계하여 보다 나은 질 향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대회에 참가한 각 팀의 포스터는 1층 로비에 전시되어 병원을 찾은 모든 이에게 공개되었다.



■ 서울의료원 ‘2006 하이서울 건강도시엑스포’ 참여 ■

“시민건강 대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행사기간 : 2006.11.16(목) ~ 11.19(일) (4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2. 행사장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 3호선 학여울역
3. 주 최 : 서울특별시, SBS
4. 서울의료원 참여내역
 - a. 골다공증측정 및 성인병(당뇨 및 혈압) 검진
 - b.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과 및 영양 상담
5. 무료입장권 다운로드 및 참고: <http://hexpo.korea.com>

■ 시민 공개 건강강좌

일시	강사	제목	장소	시간
11. 2	원경현	고혈압과 고지혈증	노원구보건지소	14:00-15:00
11. 9	원경현	고혈압과 심장질환	노원구보건지소	14:00-15:00
11. 23	원경현	고혈압의 예방	노원구보건지소	14:00-15:00
11. 30	원경현	고혈압의 허와실	노원구보건지소	14:00-15:00
12. 7	손 인	저혈당, 고혈당 관리	노원구보건지소	14:00-15:00

■ 학회 및 연수

- 김나라(8.26~28 보바스기념병원) - motor control of human movement
- 정영숙(8.27 그랜드힐튼서울호텔)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 박송희, 이채영, 김영미, 차명진(9.3 레미안 갤러리AV룸) - oncology pharmacy symposium
- 차연희, 박미영(9.6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 2006 의학학술지발전을 위한 정기워크샵
- 김종필, 양승소, 전용진(9.9 건국대학병원) -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 박미영(9.15~9.16 신라호텔) - 한국 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 양귀혜(9.16~17 그랜드힐튼) - 샤인덴탈 네트워크 종합학술대회
- 김만집, 박상륜, 정하봉, 하태훈, 김양현, 서재우, 황병철, 최윤정, 최상호, 손현수(9.19 건국대병원) - 서울시 방사선협회 보수교육
- 장성군(9.22 한국열관리사협회)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신규 선임자교육
- 이영면, 김형준(9.22~23 남원의료원) - 지방의료원 단체교섭 실무자 교육
- 조상규(9.25~27 한국오라클 여의도 교육장) - oracle9i database-SQL Tuning Workshop
- 왕미숙(9.27~10.2 노르웨이) - q-conference 논문발표
- 안윤자(9.28~29 금호화순리조트) - 38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추계학술대회
- 조규성(9.26 한국양성평등교육원) - 공공기관 관리자 성희롱예방교육
- 공민호, 방순식(10.11~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CQI초급과정
- 이용직, 허수학(10.12~10.13 코엑스) - 한국 분자세포생물학회
- 임환열(10.13 서울아산병원) - 2006년도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 참석
- 윤석준(10.13 서울아산병원) - 13차 병원행정종합 학술대회 - <환자중심형 전문 진료센터 모델 개발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 김해옥, 김희정, 신윤선(10.17 서울힐튼호텔) - 정도관리 추계학술대회



- 김영미(10.18 경기도 라비돌 리조트) - 병원약제부서 중견리더 연수
- 윤의성, 민학진, 서재성, 김윤중, 원종화, 박철희, 선승민, 조승목, 김진수 (10.18~22 그랜드힐튼) - 대한정형외과학회
- 이용직, 허수학(10.20 대한민국학술원) - 제33회 학술원 국제 심포지움
- 이경애(10.24~28 미국 괌) - 신한카드 기업별 회계 담당자 선진교육
- 윤석준 (10.26 경주 교육문화회관)- 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 <의료관리 연구의 개념적 틀과 최근동향> 세미나
- 박미영(10.27 한국과학기술회관) - 한국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윤성민(10.24~30 독일 바덴바덴) - medical week 학술대회 및 대체의학 관련병원방문
- 심혜진, 김연정, 장미진(10.31 담양리조트) - Geochemical & Bio technological Approaches for Sound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n 2006
- 김석연(2006.11.1~2007.10.31 미국 워싱턴) - 1년 장기 연수 :심혈관조영술 의 최신지견, 관동맥 질환 재협착에 관한 실험

■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 구소령(외과 전공의 9.1)
- 장세연(신경외과 전공의 9.1)
- 장미진(부설연구소 9.1)
- 최선복(치과 9.26)
- 윤석준(부설연구소 정책연구실 실장 10.1)
- 이재욱(총무팀 10.9)
- 김현선(간호부 10.10)
- 석해준(총무팀 10.16)

■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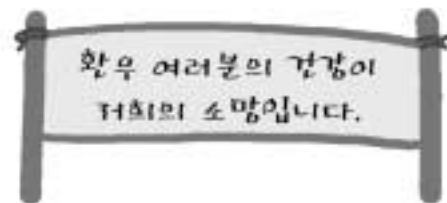
- 김은희(응급센터 10.31)
- 김선정(간호부 10.31)
- 양지영(영양실 10.31)

■ 축하합니다

- 조상규(특남, 전산실 8.28)
- 양윤선(특녀, 간호부 9.14)
- 심현정(특녀, 간호부 9.25)

■ 결혼을 축하합니다

- 전용진(진단방사선과 9.24)
- 최준혁(내과 전공의 10.14)
- 지은미(간호부 10.21)
- 김태정(간호부 10.22)
- 이은주(간호부 10.28)
- 이소영(약제팀 10.28)



편집후기

쏟아진 시간 흘러 벌써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홍보실에서 왕진가방을 맡아 제가 편집장이 된 지 일 년이 되었군요. 때론 힘들기도 때론 즐겁기도 했던 시간들이지만 어느 순간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일신 우일신하는 왕진가방에 보람을 느낍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연말에 너무 많이 드시진 마세요. ^^



최 범

원고를 기다립니다

함께 꾸려가는 왕진가방. 직원분들이나 환우여러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병원소식, 문학단상, 의학상식, 병실동정, 동호회 소식, 의료장비 소개, 영화감상, 여행기, 제언 등 이밖에 살아가는 얘기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제출처 : 「왕진가방」편집실 : Tel 3430-0414 Fax 558-6797

E-mail : seoulmcpr@naver.com

「왕진가방」 편집위원

편집장 : 최 범(홍보실 T.3430-0414)

편집위원 : 김혜민(홍보실 T.3430-0414) 남윤진(홍보실 T.3430-0414)

신동규(외과 T.3430-3502) 이호연(간호부 T.3430-0541)

이미현(기획팀 T.3430-0279) 김학진(총무팀 T.3430-0222)

김용덕(원무팀 T.3430-0260) 심혜진(부설연구소 T.3430-0672)

김희정(진단검사의학과 T.3430-0447)

『왕진가방』은 비매품입니다.

2006년 11·12월 진료시간표

진료과	성 명	오 전	오 후	전문진료분야	특수 클리닉
내 과 ㉸ 0620	손 인	화, 목	월, 수, 금	당뇨, 갑상선	갑상선 클리닉(수 오후)
	이계희	월, 수, 금	수	급·만성 간염, 간경화	C형 간염 클리닉
	김석연	미국 Medstar Research Institute Washington Cardio Vascular Center 연수(2006. 11. 1~2007. 10. 31)			
	장유현	화	월, 목	췌장, 담도, 위장관, 간질환	소화성 궤양 클리닉(화 오전)
	원경현	월, 금	화, 수	심장, 혈관조영술	비만클리닉(수 오후)
	윤수진	월, 수, 금	화, 목	신장	만성 신부전 클리닉(화 오후)
	송숙희	화, 목, 금	월, 금, 수	천식 및 알레르기	알레르기 클리닉(금 오후, 월 오전)
	김봉룡	목	화, 금	췌장, 담도, 위장관, 간질환	과민성 대장염 클리닉(화 오후)
	윤성민	월, 화, 수, 목		혈액종양내과	대체의학 클리닉(수 오후)
외 과 ㉸ 0665	김일명	금	화	혈관외과, 이식	하지정맥류 클리닉(금 오전)
	윤 진	수	금	간, 담도, 췌장	담석증 클리닉(금 오후)
	박상수	목	월	대장항문외과	대장항문 클리닉(목 오전)
	신동규	화	목	위암	위암 클리닉(목 오후)
	강성구	월	수	유방암	유방 클리닉(목 오전)
신경과 ㉸ 0643	김민기	월, 화, 수	화	뇌졸중, 치매	뇌혈관(뇌졸중) 클리닉(화 오전)
	안진영	수, 목	월, 목	뇌졸중, 파킨슨, 두통, 치매	
	배종석	화, 금	수	말초신경장애, 간질	손발저림 클리닉
	박성식	월			
	장민옥		화		
신경외과 ㉸ 0645	송관영	수, 목	월	뇌종양, 중풍	중풍 클리닉(수 오전)
	강동수	월, 금	수	뇌혈관, 척추	뇌정위수술 클리닉
	공민호	화, 목	화, 금	척추질환	척추(디스크)클리닉(화·목 오전)
	홍현중	화, 수	목	척추질환, 두부, 척추외상	척추·신경손상클리닉
정형외과 ㉸ 0675	윤의성	금	월, 화	고관절, 족부	인공 고관절 클리닉(월 오후)
	민학진	월, 목	수	척추외과	척추 내시경 클리닉(목 오전)
	서재성	수	월, 금	척추슬관절	슬관절 클리닉(수 오전)
	김윤중	월, 목	수	견주관절	견주관절 및 관절경 클리닉(월 오전)
	원종화	화, 금	목	척추외과	척추클리닉(금 오전)
흉부외과 ㉸ 0690	성상현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일반흉부 및 심혈관 질환	
비뇨기과 ㉸ 0625	김태규	수	월, 화, 목, 금	요석, 내비뇨, 요실금	
	전승현	월, 화, 목, 금	수	전립선비대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클리닉(수 오전)
산부인과 ㉸ 0630	김동진	월, 목	수	중양막, 폐경기질환	갱년기·부인암 클리닉(수 오후)
	조 숙	화, 금, 토(격주)	월, 목	갱년기장애, 여성요실금	갱년기·요실금 클리닉(목 오후)
	최 범	수, 토(격주)	화, 금	골반경수술, 부인과성형수술	고위험 임신 클리닉(화 오후)
소아과 ㉸ 0640	장성희	월, 화, 목, 토(1, 3주)	수, 금	감염	소아알레르기 클리닉(수), 소아비만 클리닉
	김현숙	수, 금, 토(2, 4주)	월, 화, 목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이비인후과 ㉸ 0671 (토·오전 진료)	정우찬	월, 화, 목	월, 화, 금	비과, 중이염, 두경부외과	두경부종양(화 오전)·어지럼증클리닉(금 오후)
	백승재	월, 수, 금	월, 수, 목	소아 이비인후과	난청클리닉
정신과 ㉸ 0650	최진수	수	월, 목	행동장애, 발달장애	자폐아클리닉(1,3주 화요일), 소아·청소년정신건강클리닉(목 오후)
	조경형	목, 금	월, 화	정동장애, 수면장애, 약물정신	기분장애 클리닉(목 오전)
	장용이	월, 화	수, 목	정신분열, 노인정신장애	정신분열증(화 오전)
	하종은	화			
	박병선		금		
안과 ㉸ 0660	오정환	화, 수, 목	월, 금	백내장, 소아안과, 망막	
	오주연	월, 금	화, 수, 목	외안부, 백내장	
피부과 ㉸ 0687	신준우	월~금	월~금	피부알레르기, 건선, 백반증	
치과 ㉸ 0685	양귀혜	월~금	월, 화, 수, 금	보철치료, 틀니	
재활의학과 ㉸ 0643	윤경재	월, 수, 목	화	뇌졸중, 오십견, 근육통, 손발저림	오십견 클리닉
	박희동	화	월, 수, 금	근골격계 질환, 전기 진단, 척수손상 및 뇌손상	요통 클리닉, 족부 클리닉

환자중심병원



진료과목

내과 · 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신경과 · 흉부외과 · 산부인과 · 소아과 · 피부과 · 비뇨기과
안과 · 이비인후과 · 치과 · 정신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 재활의학과 · 응급의학과 · 건강증진센터

교통안내

버스편 : 서울의료원 정문 : 초록 (지선) 3417, 파랑 (간선) 640
강남경찰서 정류장 : 초록 (지선) 2225, 3217, 3218, 3411, 3412, 3414, 3415, 3417, 3422
파랑 (간선) 361, 363, 640, 730
지하철 : 2호선 삼성역 7번, 8번 출구 (도보로 5-7분)

진료시간

오전진료 : 08:30-12:30
중식시간 : 12:30-13:30
오후진료 : 13:30-17:30 (토요일 : 09:00-12:30)

